

2020 주일메세지

아브라함의 꿈, 야곱이 마침내 별이 되다.

1. 별! 꿈을 꾸다.

별이 주는 이미지는 ‘꿈’이다. 꿈이란 분명한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램을 말한다. 하늘에 별이 분명히 보이는데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별이 하늘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에 별이 태양빛을 비추어 빛나고 있기 때문일까? 하여간 별은 꿈이며 소망이다.

(1) 아브라함

성경에도 별을 보고 함께 꿈을 꾸는 장면이 소개된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이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민족을 이루며 그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이다.

[창세기 12: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위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주신 복이 회복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창1:27-28) 복의 시작이 아담이었다.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으셨다. 그런데 결국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꿈이 유실되었다. 땅을 축복할 복의 권세를 잃은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은 고통 가운데 시름해야 했다. 그 아픔이 바로 ‘가족’의 분열이다.

아담을 통해 흡수된 ‘죄의 유전’은 결국 가인을 통해 가족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 사건으로 나타났다. 가인에게 있었던 살인의 마음은 가인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그 유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아버지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의 유전자 때문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사건이다. 비극 중의 비극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이 누구를 원망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답은 간단하다. 자식의 허물을 보며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는 없다. 다 자기 잘못 같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결국 그 복을 잃어버린 예상된 결과가 현실이 된 실재적 고통이 아버지 아담의 고통일 것이다. 아담이 유실한 하나님의 복은 아담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중요하다.

(2) 유전자 -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유전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형질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외모, 성품, 심지어 질병까지 흘러간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흐름을 보여준다. 아담 안에 있었던 죄로 인한 저주의 흐름은 분명히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 노아 - 함의 저주

[창세기 9:22, 25]

- 22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 25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 아브라함 -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갈등

[출애굽기 20: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다.

[신명기 5:10]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예레미야 32:18]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복과 저주가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당대'만 보아서는 안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3대, 즉 한 세대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2. 가문, 3세대의 축복

(1) 아브라함 - 복의 시작

아브라함은 아담에게 끊어진 복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다.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회복된 복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로부터 복의 시작이자 완성이요 근원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언약 속에 우리들이 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별'로 보여진다.

[창세기 15:5]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별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 일을 이루어낼 아브라함의 꿈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전자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

(2) 이삭과 야곱

하늘의 별,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꿈은 결국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러 현실이 된다. 야곱의 축복은 무엇인가? 야곱의 오직 소원은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이었다. 장자의 복을 침노했다는 것은 그 복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은 이 땅의 어떤 권위보다 높다. 어떤 권세보다 강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도 굴복해야 할 권세이다. 인간으로부터 주어지고, 획득되어지고, 만들어진 복이 아닌 것이다.

(3) 하늘의 별

이런 야곱의 갈망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얻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12명의 아들이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 결국,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의 별'은 야곱, 즉 3대에 이르러 현실이 된다.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다. 오늘의 강력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한 세대의 완성된 축복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3. 함께 꿈을 꾸다.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러 현실이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 3세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언약의 증표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2)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다. 삶의 겸허함이 임하는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내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 말하지만, '운'은 우연의 역사이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운은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은총이다. 은총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 야곱에게 열린 하늘문은 야곱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단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그때와 공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늘의 별에 대한 꿈은 야곱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졌다.

(3) 함께 꿈을 꾸는 축복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3세대가 함께 하늘의 별을 마음에 품는 일이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본 별을 아들 이삭이 보고, 그 별을 손주 야곱이 보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가족'의 해체에 있다. 3세대가 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당대에 복을 받는 일이지만, 자신보다 더 큰 복이 자녀의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다. (신앙의 전수)

오늘 아브라함이 마음에 소망했던 하늘의 별이 우리 가문 3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함께 꿈을 꾸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제 가족을 넘어 가문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문에 임하기를 기도하자.